

# ‘試驗을 위한 試驗’은 止揚되어야

洪 東 植

(釜山大 社會學科)

1

해방 이후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양적 팽창은 새삼 들먹일 필요조차 없다. 이제 서울에 있는 각 대학들은 물론 지방에 있는 웬만한 대학들도 그 규모에 있어서 가히 세계적임을 자처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처럼 ‘양적 폭발’이라 불려도 좋을 만한 각 대학의 놀랄 만한 성장을 오늘날 오히려 학계에서는 물론 사회 일반에서조차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마저 적지 않음은 결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대학교육의 양적 팽창이 질적 개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거듭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대학교육의 대중화라는 명분만으로 오늘날 대학교육의 양적 팽창을 합리화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대학의 양적 팽창 이면에는 대학원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게 누적되어 왔다.

그동안 대학(학부)의 온갖 내·외적 문제가 1차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와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대학원의 문제는 대학 내부에서조차 부차적·주변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대학원 중심 교육의 강화’, ‘대학원 교육의 확충’이라는 명분 아래 각 대학마다 경쟁적으로 대학원의 양적 폭발 현상을 노정시키면서 대학원의 문제도 점차 대학의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은 외형적으로 미국식의 교수 강의와 학위 논문 지도 방식을 채택해 왔으나,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 내용면에서 ‘도제식의 교육 방법’을 채택하여 왔다. 각 대학 나름대로는 대체로 대학원 교육의 형식과 체계를 명문화하고 강조해 왔으나, 지도 방식을 보면 개별 교수 중심의 ‘서당식 교육’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오늘날 대학원 교육에서 나타나는 형식과 내용의 괴리는 대학원 교육 방향에 커다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이러한 혼란은 각 대학마다 대학원 교육의 경쟁적인 확충 경향에서 보다 가중되고 있다.

필자가 여기에서 보다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제 2 외국어 시험의 과제도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의 전반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에서 제 2 외국어의 시험이 필요한가 하는 단순 논리의 해석보다는 앞으로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바람직하고 현실성 있는 시험의 기준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살펴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대학원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절대 필요한 유능한 학생 선발, 대학원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관련하여 제 2 외국어 시험의 현실 적합성, 당면 과제 등을 살

퍼 보고자 한다.

## 2

우선 대학원 학생 선발에 있어 제2외국어 시험의 과제를 살펴 보기로 한다. 대학원 교육의 질적 확보를 위해 유능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 대학원 입학 시험의 기능은 학부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생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점과 아울러 대학원 과정에 실제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방향을 제시한다는 데도 큰 의의가 있다. 학부의 시험은 그동안 국가적인 중요 연례 행사가 되다시피 전 국민의 관심을 끌어 왔다. 이에 비해 앞으로 학계와 사회 전문 분야의 젊은 인재들을 양성해야 할 대학원 입학 시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하였다. 더구나 최근 많은 대학에서 대학원 입시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고, 심지어 대학원 입학을 위한 재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입시 제도는 별다른 개선 방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학원 입학 시험의 두 가지 핵심적 기능인 공정성과 교육 방향 제시의 기준에서 제2외국어의 위상을 살펴 보자. 대학원 입학 시험(특히, 인문사회계 박사과정)에 있어서 영어와 함께 제2외국어가 공통으로 부과되는 경향이 많고, 앞으로 보다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공통의 어학 시험 이외에 각 학과별로

전공과 관련한 필답 시험도 부과되고 있다. 대학마다 심지어 같은 대학내에서도 학과마다 사정이 다르겠으나, 입학 경쟁이 치열한 경우(또는 다소 있더라도) 전공 시험의 객관성·공평성 유지는 쉽지 않은 과제로 흔히 나타나고 있다. 비록 전 대학의 경우는 아니라도 대학원 입시가 공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인맥이나 선배순, 학연(동일 학과 졸업) 등 특수주의적 기준에 얽매어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적지 않다. 대학원 입시의 출제나 평가 기준의 연구 개발이 미흡하고, 또 전공 분야의 경우 대체로 영세한 개별 학과에 맡겨져 있는 현실에서 비록 크게 표면화된 것은 아니라도 여러 잡음의 소리는 적지 않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여건에서 보다 객관성(개별 교수의 주관적 평가를 보다 배제해 나갈 수 있는)을 확인하기에 용이한 대학원 지원자 공통의 제2외국어 시험 부과는 나름대로 그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제2외국어 시험의 부과가 대학원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는 대단히 궁색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영어 시험과는 달리 제2외국어 시험은 독어, 불어 등 과목이 다양하게 부과될 뿐만 아니라 각 과목의 출제 수준 또한 다른 경우가 많아 각 과목내의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객관적 선발 기준 제시가 쉽지 않다고 본다. 아울러 입학 시험의 비중이 비교적 제일 높은 전공 분야의 출제, 평

가의 객관성 문제는 다른 어떤 분야의 평가로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제2외국어 시험과 관련하여 더 중요한 문제는 대학원 교육의 방향과 관련한 것이다. 학문의 심오한 연구를 위해 보다 많은 외국어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얼핏 당위적인 것이면서도 지나치게 원론적인 것이라고 보여진다. 제2외국어의 습득은 우리 현실에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볼 때 전공 분야 연구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 물론 특정 제2외국어의 습득이 특정 전공 분야 연구에 절대적인 위치를 갖는다면 이야기는 다를 수 있다. 결국 제2외국어가 특정 학문 분야 연구에 필수적이라는 학계의 폭 넓은 합의가 없는 한 대학원(특히, 박사과정) 입학의 기본 요건으로 설정하는 데는 우리가 있다.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의 방향과 관련한 두번째 문제 제기는 미국적 편향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학계는 학문 분야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미국의 학풍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바 크다. 우리나라 학계가 다양한 학풍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대한 지역적 연구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져 제2외국어의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계에서 '미국식' 이니 '미국적' 이니 하여 미국의 학풍이나 연구 활동

을 단일 범주로 묶으려는 일부의 주장에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학문 연구에서 '미국식' 이니 '영국식' 이니 '독일식' 이니 하는 단순 논리는 실제 내용을 나타내기보다는 지나치게 사전인수적인 파생적 구분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각 나라마다 교육의 제도적 특성에 따라 교육상의 독특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그렇다고 각 나라의 학풍과 학문을 상호 분리된 시각에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국내 대학원 과정에서 획일적으로 제 2 외국어를 의무화함으로써 미국의 학문적 영향(어떻게 규정하건 간에)을 벗어나야 하겠다는 시도는 꼭 바람직한 것도 또 실효성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해외 유학 대상 국가의 다변화를 장려한다든가, 국내 대학원 과정에서 세계 각국에 대한 지역 연구를 활성화한다든가(주로 인문, 사회 분야에 관련한 것이겠지만) 함이 보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제 2 외국어 시험의 형식성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대학에 따라 다르기는 할 것이나, 특히 대학원 입시에 있어서 제 2 외국어 시험이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 능력보다는 많은 경우 형식 중심으로 흐르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학원 입시는 단순히 일정 수를 뽑기 위해 순위를 매기는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이 되기 위한 기본 소양을 확인하는 데 주요 기능이 있다. 따라서 대학원 교육에서 제 2

외국어 습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험을 과할 경우 입학 시험의 내용이나 수준은 실제 대학원에서의 학습 능력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원 입시에 있어서 제 2 외국어 시험은 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특히, 독해력에 있어서)을 제시하지 못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 동토를 대학원 수준에까지 연장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단순히 시험을 치루기 위한 학습을 강요하기 위해 제 2 외국어 시험을 획일화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자격을 평가하기 위한 종합 시험의 일환으로서 제 2 외국어를 부과하는 문제를 살펴 보기로 한다. 종합 시험은 기본적으로 박사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였는가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된다. 종합 시험의 성격을 현행대로 필답 시험 중심으로 해야 하는가는 이 글의 주제를 넘어서는 것이기에 차치하더라도, 세심스럽게 외국어에 대한 필기 시험을 또 다시 부과해야 할 것인가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고 보여진다. 외국어의 실력이 대학원 과정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일반 전공 능력의 평가나 평소 학습 과정에서 보다 실제적인 형태(이를테면, 원전의 독해나 레포트 작성 등)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더구나 우리의 현실에서 볼 때 많은 학과의 경우 제 2 외국어에 기초한 원전 중심의 교육 활동이 극히 저조한 실정에 있

다. 특정 국가에 대한 지역 특성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경우, 제 2 외국어의 습득이 꼭 필요하지 않을 경우도 많다고 보여진다. 또 제 2 외국어로 쓰여진 책이라도 학문적 평가가 널리 인정된 것은 영어로 번역된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 2 외국어가 모든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종합 시험에서 제 2 외국어를 의무화하는 것은 시험 중심의 형식주의를 다시 한번 더 조장하는 데 그칠 우려가 있다.

### 3

대학원 교육에 있어서도 시험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단지 시험이 얼마나 공평성을 유지하고 또 올바른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 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 뒤늦게나마 대학원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실효를 거두려면 입학 시험에서부터 논문 시험 전반에 이르기까지 시험 제도의 재검토와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 2 외국어 시험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원 교육이 각 대학, 학과, 학문 계열별 특성과 요구를 최대한 발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 제 2 외국어의 시험을 획일적으로 부과하는 문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최소한 학과별·대학별로 제 2 외국어 시험 제도가 대학

원 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에 근거한 관련 학자들의 광범위한 합의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 2 외

국어 시험의 존재 여부를 획일적인 시각에서 규정하려는 노력은 대학원의 질적 개선이나 자율적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또 시험 위주의 형식적 교육을 탈피해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제 2 외국어의 시험

이 필요한 경우에는 질적 수준의 현실화가 필요할 것이다. '시험을 위한 시험'만은 현실 점에서 꼭 극복되어야 할 과제라고 보여진다. \*

### 〈 投 稿 案 內 〉

「大學教育」 제43호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과 같이 公募합니다.

1. 內 容—大學教育에 관련된 論說, 대학에서의 研究 및 教授 활동 중에서 대학 사회에 시사할 수 있는 主題에 관한 논의, 각 學科의 교육 과정이나 교수·학습 활동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와 외국에서의 연구 동향 소개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글

① 論 壇                      ② 教授談論                      ③ 學科別 教育課題

2. 枚 數—200자 원고지 35매, 45매 또는 54매 (②는 15매 또는 23매)
3. 期 限—1989년 11월 20일
4. 稿 料—매당 3,000원(채택된 원고에 한함)
5. 提出處—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韓國大學教育協議會 (전화 783-3891, 3067)
6. 附 記

- ① 國漢文을 혼용하되 漢字를 제한하고 필요할 때에는 原語를 併記해 주십시오.
- ② 論壇原稿에는 반드시 200字 이내의 要約文이나 拔萃文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③ 제출된 원고는 編輯委員會의 審識를 거쳐 게재합니다.